

신 백과사전

마이클 조던 지음

동서고금 2800여 신 총정리

신을 믿는가. 세상의 모든 신을 한자리에 불러보았다.

종교 인류학 저술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마이클 조던이 쓴 '신 백과사전'은 전 세계 200개 문명권에 자취를 남긴 2800여 신들을 목록으로 만든 책으로 인류문명사를 신이라는 렌즈로 보여준다. 고대부터 인간 세계에 머물렀던 신들이 조성 순으로 정리돼 있다.

저자는 10여년의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주요 신들의 기원, 숭배 시기, 별칭, 숭배 중심지, 예술, 문헌 자료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특히 신들의 역할과 위상을 통해 그 시대와 생활상, 문화 등을 짐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인간과 함께 걷고 말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며,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처럼 행동한 신들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철학자이자 미술사학자인 프래드 케팅스가 펴낸 '악마 백과사전'도 함께 번역, 출간됐다. <2만5000원·보노>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질문

로버트 노직 지음

삶의 가장 큰 가치는 성찰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라는 화두에 대해 답하는 책이 나왔다. 미국의 자유주의 철학자 로버트 노직이 펴낸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질문'은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제시한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위대한 철학자의 정신세계를 탐구해볼 수 있는 일종의 대화상자이다.

저자의 논지에는 정해진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사상과 생각들이 부딪치고 화해하고 섞여든다. 소크라테스의 관념론은 저자 특유의 날카로우면서도 논리적인 안목과 어울려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그로 인해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한 사고 방식에 문제를 제기, 각 개인에게 성찰을 자극한다. <김영사·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정부·기업·권력이 설정한 도시 금지구역 탐험기

## 도시 해킹

브래들리 개럿 지음



책에 등장하는 사진들은 아찔하다. 하늘 높이 치솟은 런던 마천루 꼭대기에 서서 안전장비 하나 갖추지 않은 채 '맨몸'으로 짝한 사진을 보면 금방 바닥으로 떨어져버릴 것같은 긴장감이 든다.

그들은 파리의 깊숙한 하수구에도 나타나고, 런던의 폐쇄된 지하철에도 모습을 드러낸다. 미국 시카고 힐튼 호텔 꼭대기에도 등장하고 소련 잠수함에도 잠입한다. 바로 '도시 해커', '도시 탐험가'다.

도시인류학자이자 '도시해커'인 브래들리 개럿의 책 '도시해킹'(원제 Explore everything)은 '탐하라, 허락되지 않은 곳을'이라는 부제처럼 지금까지 범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도시 공간을 탐험한 기록이다. 그 공간은 최첨단의 고층 빌딩 뿐 아니라 폐허가 돼버린 역사의 잔해를 모두 아우른다.

'도시 해킹'은 도시 탐험과 공간 해킹

## 하수도·마천루... 맨몸 기록

부당하게 제약 받아온

도시속 우리 권리 되찾기

의 합성이다. 정치·기업·권력이 설정한 도시의 금지 구역을 공간해킹해 시민의 진정한 공간적 자유를 되찾으려는 21세기 새로운 문화를 지칭한다. 국내에서는 낯선 개념이지만 이미 미국과 유럽은 물론 이웃한 일본 역시 하시마섬 등 폐허를 중심으로 도시 탐험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옥스퍼드대에서 도시 해킹 경험을 논문으로 써 박사 학위를 받은 저자는 4년간 직접 런던 도시탐험대(LCC)와 활동했다. 그는 2012년 EU(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인 '더 샤드'를 탐험했다. 고층빌딩만이 아니다. 1850년대 설계된 런던 하수도의 치명적인 매력에 빠지고 발걸음은 파리 하수도로 이어진다.

그는 100명이 넘는 탐험가들과 8개국, 300개가 넘는 공간을 탐험했고, 그 모험담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그의 글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도시 탐험가들의 이야기가 때론 완벽히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들의 열정만큼은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LCC는 마지막 해킹 목표인 대영박물관역을 공략하던 과정에서 몇 년 전부터



도시 인류학자 브래들리 개럿은 책 '도시 해킹'에서 도시탐험은 부당하게 제약받아 온 도시 속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행위라고 말한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위치한 포트레일 브리지 위에 선 도시탐험대 LCC 회원 모습. <메디치 제공>

근질하게 추적해온 런던경찰국에게 포위돼 전원 체포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저자에 따르면 도시탐험의 세계로 빠져드는 가장 흔한 길은 도시의 폐기된 공간, 즉 쓸모 없어 보이는 장소와 건물에 매료되는 거다. 이후 보안이 탄탄한 기업 건물과 국가 소유 부지 및 네트워크에 잠입하는 은밀한 시도를 꾀한다. "도시 탐험은 보안을 잠식하는 행위"

라고 말하는 저자는 "시민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과 없는 것을 규정하는 말끔한 서사에 위협을 가해, 부당하게 제약 받아온 도시 속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행위"로 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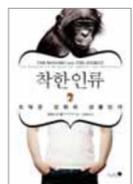
책이 출간된 이후에도 도시 해킹과 관련한 '사건'은 계속 터졌다. 2014년 중국 기업 건물과 국가 소유 부지 및 네트워크에 잠입하는 은밀한 시도를 꾀한다. 이 덕분에 성공했다. 이들의 탐험 과정

은 유튜브에서 3300만건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이 높이 550m짜리 거대한 테마파크(롯데월드를 지칭)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 곳 옥상에서 안개 낀 서울의 정수리를 찍은 사진이 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연 그렇게 될까? <메디치·1만7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동물도 공감능력... 도덕의 뿌리는 이성 아닌 감정



착한 인류-도덕은 진화의 산물인가

프란스 드 발 지음

도덕은 과연 진화의 산물인가? 그렇다면 도덕은 어디에서 왔을까?

많은 사람들은 인간 본성이 본래 선하지 않으며 자연은 양육양식의 장이라고 믿어왔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인 장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도덕이라는 인위적인 고안물이 탄생하게 된 이유다.

종교인들은 도덕을 신에게서 온 명령으로, 철학자들은 이성의 규칙에서 도출된 것으로 여겼다. 다소 상이해 보이기

만, 도덕이 위에서 내려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백기를 든 이가 있다. 네덜란드 출신 세계적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 발은 '착한 인류-도덕은 진화의 산물인가'에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왔다고 강조한다.

도덕이 신의 명령이나 이성의 원리가 아닌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감정에 근거한다는 거다. 이러한 주장은 저자가 오랜 기간 영장류센터에서 침팬지를 대상으로 실험한 사례를 토대로 얻어진 결론이다.

동물의 공감에 대한 이러한 관찰은 영장류뿐 만 아니라 개, 코끼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침팬지가 우울해하는 동료를 안아주고 위로하는 사례는 수천 건에 달한다.

저자는 이처럼 동물들도 남을 돕고,

공감 능력을 갖고 있으며, 정의의 감각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보상이 없이도 선행을 베풀며 타자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도덕의 뿌리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있다고 보는 연유다. 즉 대부분 영장류 사회에서 공동체 내의 협약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데 그것의 뿌리는 공감 능력과 배려라는 것이다. 도덕성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배경으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아 형성된 결과라는 의미다. 모든 생명체는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타자를 보살핀다.

"나는 도덕을 저 위에서 가져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도덕이 우리 내부에서 올 수는 없을까? 내부의 도덕성은 동정심으로 작동하고 공정성의 감각으로도 작동한다." <미지북스·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청년들이 들여다 본 일제강점기 군산



왜 우리는 군산에 가는가

강석훈·심효윤 외 6명 지음

해방 후 3세대 청년들이 다시 들여다본 일제강점기 군산은 어떤 모습일까.

문화재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석훈과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근무 중인 심효윤 등 청춘작가 8명이 쓴 '왜 우리는 군산에 가는가'가 출간됐다.

군산은 수탈의 통로였던 군산항을 중심으로 유입됐던 근대문화와 이국적인 정점으로 작동하고 공정성의 감각으로도 작동한다." <미지북스·1만8000원>

역사가 아닌 일제강점기 수탈과 억압, 저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다.

'군산의 일제'에 대한 답사를 만들기 위해 모인 저자들은 현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 일제의 잔해가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음을 발견했다. 흔적만 남은 곳, 흔적을 닦은 곳, 흔적조차 사라지고 없는 곳에 다시 그 흔적을 만든 곳, 흔적을 모방해 관광지로 만든 곳... 이들은 옛 일제의 모습 자체보다는 지금까지 흘러온 일제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나갔다.

책은 일제의 금강사에서부터 한국의 동국사, 적산 가옥에 얽힌 인물 이야기, 군산의 맛이자 역사가 있는 이성당 빵집 등 우리가 잊지 않고 남겨야 하는 소중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담았다. 직접 인터뷰한 문화유산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글누림·1만6000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since 1982

###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 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